

동양에서 回甲의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제 1의 인생인 6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한 새설계를 하는 제 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로 생각된다.

한생을 양계에 몸담고 살아왔고 그 발자취가 우리 협회와 우리나라 양계산업과 함께 하였기에 그 삶이 더욱 뜻있고 돋보이며 앞으로의 생활도 양계산업과 함께 하시겠기에 우리의 기대가 더욱 큰 분이 계시다. 한국가금협회 제 2대 3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 고려대학교 교수로 계시며 앞으로 1년간 한국축산학회 회장직을 맡으실 한국의 양계인 이재근 박사를 결실의 가을 연구실로 기자가 방문하였다.

## 回甲 맞는 李在根 博士와 함께

(취재부)

양계를 위해 씨를 뿌리다 .

1938년 청주의 명문 청주고등보통학교 (현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현 서울 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인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의측산과에 입학한 것이 일생을 양계와 짝짓게 된 계기가 된다.

당시만 하여도 여간해서 농대로 진학하기가 어려울때 수원고농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당시 우리나라 농촌은 일제하에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농촌 출신으로 농민을 위해 무엇인가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 . . . . 당시는 삼일운동이 지난 20여년 후이지만 학생들간에 민족의식이 눈뜨기 시작하게 되어 더욱 농촌을 위해 막연하나마 무엇을 해야 겠다는 사명감이 싹트게되어 수원 고농을 선택하였고, 입학후에 수원고농이 민족의식이 투철한 학원임을 알고 만족하게 되었다'고 당시를 말씀해 주신다

지금 생각하여 보면 고등학교 까지의 기초 교육은 수원고농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수원고농에 입학한 후에는 양계에 투신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는 이미 예정된 길을 계획대로 걸으신 것으로 생각된다. 수원고농 졸업후 당시 총독부(현 농수산부)를 첫직장으로 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만주 일본과 국내 현장 출장을 통하여 좀더 많은 곳을 보고 배우기 위하였으며 이때 부터 양계를 포함한 중소가축을 담당하게 되어 양계와는 더욱 친근하게 되었다.

전쟁말기가 되자 총독부의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식량사정은 극도로 어려워져 청년시절 뜻한대로 고향인 청주로 돌아오게 되었다.

고향 청주에서 해방을 맞은 후 1951년 청주 농과대학(현 충북대학교)이 설립되자 측산과에 전임강사로 후진양성과 양계분야의 연구 생활이 시작되었다.

업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인지요?

「1952년 당시 미국에서 뉴햄프셔(신미종이라고 불렀음) 종란이 피난수도에 도착되어 구포에서 부화하여 각도를 통해 분양 되었는데 당시만해도 각도종축장이 겨우 양계 500수 정도이며 사료는 자가배합사료에 의존하는 극히 영세한 규모이었는데 이때 100수정도로 양계를 직접 시작하고 그후 10여년후 충북대학 실습목장에 부화기를 구입하게 되어 강금노씨를 통하여 김현배씨를 소개받고 김현배씨가 학교 부화기를 제작하면서 서울경기 지역의 양계실정을 김현배씨를 통해 알게 되어 양계강습회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어 양계 협회 창립의 모체가 되었던 장안동 양계강습회가 탄생하였지요. 당시에는 미국의 미네소타대학원에서 새로운 가금학을 공부하고 오신 오봉국 교수가 강의를 거의 전담하였었습니다」

#### 한국가금학회 제 2대 제 3대회장 역임

서울로 오신 후 가금협회 회장직을 맡게 될 때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당시 가금협회는 가족적 분위기로 제 2대는 협회중진들의 권유로 제 3대는 총회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로 회원의 요청에 의해 2대와 3대 회장직을 맡았는데 참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매월 첫 토요일 빠짐없이 양계 강습회를 실시 하였고 강습회가 끝나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때 그때의 현안 문제를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처리하여 나갔습니다. 그때의 회원들의 열성은 대단하였지요. 밥이되는 과정으로 말하면 한참 끓는 과정에 회장직을 맡게되어 다 된 밥을 먹는 시기에 하는 것보다도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직시에 양계강습회 외에도 여러 가지 하신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시는 것 몇 가지만 이런 기회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시 서울경기지구는 어느 정도 양계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지방은 서울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져 지부조직을 강화하고 여름철에 지방강습회를 시작했는데 당시 협회의 빈약한 재정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둘째로 양계경영의 성패가 좌우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기술이기도한 육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오봉국교수가 육추일지를 만들어 저작권을 협회에 기증 하므로써 초기 협회살림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일반양축가에도 육추의 길잡이 노릇을 다했습니다. 그후 “양계기술”을 발간하여 현 월간양계 발간의 준비작업을 하게 되었지요. 그 당시 협회 이사되시는 분들이 벌써 닭고기 및 계란의 소비선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당시 YWCA와 공동으로 닭요리 강습회를 개최하고 주부들에게 닭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기 위해 병아리 키르기 콘테스트 같은 행사도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각종 시세조사와 해외문헌 알선사업등 각종알선사업 기술지도사업 (외국계 수입추천 업무 등)을 생각나는게 많지만 협회사업의 근간은 능력검정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검정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는 외국계가 시험용으로 2~3천수 정도씩 수입되기 시작하여 국내 대부분의 종계를 성환에 있는 축산시험장을 통해 공급받아 오던 업계에서는 과연 외국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더욱이 국산계도 각 부화장마다 적당히 교배해서 출하하므로써 일반 양축가가 병아리 구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실정을 그대로 협회에서 방관만 할 수 없어서 여러 이사님들의 뜻을 모아 능력검정사업을 협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7개군의 출품을 받아 경기도 광주에 있는 현 경기도 종축장에서 예비검정을 실시하므로써 협회가 객관성있게 능력검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되고 외부에 인정을 받음으로써, 다음해 부터는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게되어 협회가 성장할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예비검정을 실시하는데 협조하여 주신 이남표장장께 지금도 감사하며 그때 부회장으로 계시던 김원복, 김영회 사장님의 뒷받침은 헌신적이었지요. 당시 축산국장은 김영한 씨였는데 축산시험장에서 검정사업을 해야한다는 축산시험장장의 강력한 반발에도 협회 간부진의 의견을 듣고 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므로써 국가에서도 공인하는 검정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캐나다의 겔프대학 스린저 박사에게 검정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았는데 시설 및 제반 관리사항은 아담하고 규모있게 잘 운영되고 있으나 반복이 없는 것이 결점이라는 정도로 우리의 의견과 같았습니다. 협회가 힘을 모아 일치단결하여 건실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부도 협회를 믿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지요. 검정계의 출품을 받아놓고 보조금이 나오기전 유추할 곳이 없어 어려울 때 이문양계부회장의 이창열사장이(협회 부회장) 선뜻 유추장소를 제공하는 등 당시 너무도 협

조가 잘 되었습니다」

### ◎ 감격스러운 순간

1965년 정기총회는 정말 일생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검정소 부지마련을 위해 전회원이 하나로 뭉쳐 당시 80여만원 이상이 거출되었는데 더욱 눈물겨운 것은 박도현(한협가금육종농장), 김영회(영육농산(주)) 사장님 등은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큰 회사이었다고 하지만 영세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형편에도 거액을 찬조하여 현 성북구 공능동에 2,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게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감격스러웠었고 다른 업계에서도 양계업계를 가볍게 보아오다 찬조금거출을 통한 단결된 힘을 보고 놀라더군요. 공능동 검정소 부지가 현시가로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도 당시 80 만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이었습니다. 검정사업 외에 협회를 운영하시며 생각하시던 것이 있었는지요?**

「기금이 없는 협회는 허수아비와 다를게 없다는 것이 소신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협회의 재산형성을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후 10여년간 업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에도

협회는 기본재산 형성이 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소한 회관과 기동력은 갖추었으면 하는 심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협회에서 현재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을 말씀해 주세요.**

「협회는 생산자를 지도하고 보호하며 대변하는 기관으로 우선 조직을 더욱 강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계산업이 15년 전에 비하여 수수만 증가하였고, 발전이라면 산란계는 평사에서 케이지사육으로, 부로 일러는 빠다리에서 평사로 바뀐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통개선, 소비선전, 계열생산 등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조직체가 시책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제도화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양계업자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질병이 거의 없어 이제는 부로일러의 경우 년 6회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생산조절을 농업경제국장 축산국장 농업구조국장의 3국장 통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력한 법의 뒷받침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잘되어 각 시읍면 계란생산 조절협의회에서 3국장 협의에 의하여 생산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일본도 5천수 이하의 농가부업양계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자본이 침투하여 대규모 양계를 하는 것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의 연구 중 닭의 수정생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인공수정에 대한 논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육용계 종계가 대부분 케이지 사육으로 인공수정을 하고있어 이 분야에도 공헌을 많이 하셨는데 업계에서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신 점은?**

「대부분의 종계장에 가서보면 개선할 점이 너무도 많은데 그대로 실시하고 있어 수정율의 저하는 물론 종계를 일찍 못쓰게 되는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협회나 GPS농장 등에서 지도하여 시급히 개선하여야 되겠습니다. 소나 돼지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할수 있는데 소나 돼지보다 더 어려운 닭은 아무나 실시하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협회장 재직시 정부대표로 동남아 세아지역을 순방하시었고 78년에는 제 16회 세계가금학회(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참석길에 미국의 업계도 시찰하고 오셨는데 우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시설면을 제외하고는 선진외국수준에 와 있다고 늘 말해 왔는데 이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질병천국으로 생산성도 떨어질 뿐더러 유통구조 경영기술등 너무도 후진된 분야가 많습니다.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외국의 잘하고 있는 점을 배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업계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선생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재근 박토님은 독실한 캐도릭 신자로 사모님 박영심 여사와 3남 1여의 자녀를 가지신 다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며 금곡리에 68년 7월 부터 모범적인 체란계 농장을 경영하고 계신다.

닭의 수정생리등 30여편의 연구논문과 협회재직시 검정사업의 시작과 검정소 부지확보로 기본재산의 형성 등 초창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한것은 협회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이재근박사저서 및 연구논문 목록\*\***

1. 저 서

1. 1959, 12 가금학 (공역, 한국축산학회)
2. 1964. 12 가축번식학 (향문사)
3. 1965. 2 가금학 (선진문화사)
4. 1966. 10 축산학자론 (향문사)
5. 1974. 12 원색세계백과대사전 (알편),  
학원사
6. 1975. 1 가축인공수정 (향문사)
7. 1976. 9 가금(一), 鷄 (향문사)
8. 1977. 9 축산학 (선진문화사)
9. 1977. 12 한국양계 (대한양계협회)

2. 연구논문

1. 양계에 있어서의 일광과 비타민 D에 대한 관찰, 충북대학논문집, 제 1집 : 143 ~ 150(1960)
2. 산란계에 대한 분이단일연속급여 시험, 충북대학논문집, 제 1집 : 132~135(1960)
3. 닭의 인공수정에 있어서 정액회색배율이 수정에 미치는 영향(제 1보), 한국축산학회지, 특별호 : 136~141(1960)
4. 식물성단백질 사료에 대한 건조우분첨가가 계추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 축산학회지, 제 3권 : 1~4(1961)
5. 닭의 인공수정에 있어서 정액회색 배율이 수정에 미치는 영향(제 2보), 고대 60주년 기념논문, 자연과학편 : 473~490(1965)
6. 닭의 인공수정시각이 수정에 미치는 영향 II. 深腔수정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학회지, 9(2) : 1-39(1968)
7. 닭의 인공수정 시각이 수정에 미치는 영향 II. 천질수정에 관한 연구(제 1부), 한국축산학회지, 9(2):95-105(1969)
8. 육용계의 경제성 비교시험, 한국 축산학회지, 11(3) : 270~279(1969)
9. 닭의 인공수정시각이 수정에 미치는

영향 II. 천질수정에 관한 연구(제 2보), 한국축산학회지, 12(1) : 1~10(1970)

10. 닭의 인공수정(symposium), 한국축산학회지, 12(2) (1970)

11. 닭의 인공수정시각이 수정에 미치는 영향 II. 천질수정에 관한 연구(제 3보), 오전 3시 수정과 오후 3시 수정과의 비교, 한국축산학회지, 15(1) : 10~19(1973)

12. 닭의 인공수정에 있어서 주입 정액의 회색배율과 주입간격이 수정률에 미치는 영향, 농촌진흥청연구보고, 16(L) : 77~82 (1974)

13. 돈정액 보존에 관한 연구(II), 각종 회색액이 보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축산학회지, 18(5) : 392(1976)

14. 돈정액 보존에 관한 연구(III), 액상보존액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학회지, 18(5) : 397(1976)

15. 임신토생식기관의 변화에 관한 조직학적 연구 I. 질의 변화에 관하여, 한국축산학회지, 18(6) : 518~527(1976)

16. 가금번식에 관한 연구동향, 가축번식연구회보, (1) (1977)

17. 80년대를 향한 양계산업진흥방안(symposium 개최사), 세계가금학회한국지부 회보 : 4-1(1977)

18. 닭의 인공수정에 있어서 적정주입정자수 및 주입간격에 관한 연구, 축산학회지, 2(1) : 66~71(1978)

19. 닭의 인공수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계가금학회한국지부회보, 4(1)(1978)

20. 제16차 세계가금학회총회 참가보고, 세계가금학회한국지부회보, 5(1)(1978)

21. 닭의 인공수정에 있어 항생물질첨가에 관한 연구, 한국번식연구회, 미게재.

22. 닭의 인공수정에 있어 적정주입정액량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학회 미게재.

23. 닭의 인공수정에 있어 적정정액주입간격에 관한 연구, 현재 연구진행중

24. 닭 정액의 액상보존에 관한 연구, 현재 연구 진행중.